

# 수장 따라 춤추는 치안정책... 국민만 혼란

## 광주경찰 '안심 카 귀가'·'주간 음주단속' 등 청장 바뀌면 흐지부지...교통정책도 오락가락

경찰의 치안행정이 원칙이나 철학 없이 제멋대로 춤을 추고 있다. 지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치안 정책의 일관성과 원칙을 보여주는 대신, 수장이 바뀔 때마다 시류에 편승해 내놓았다가 소리가 잦아질 정도로 사라진 치안 서비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지난 2013년 추진했던 '안심 카 귀가서비스'는 관선경찰이 최초 시행했던 서비스로, 지방청이 주민 호응도가 높다는 점을 들어 광주 5개 경찰서로 확대했던 치안서비스다.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시기, 외진 곳을 통과해야 하는 학생이나 성인 여성이 112에 전화하면 순찰차로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켜준다는 점 때문에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지방청장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됐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을 상

대로 한 홍보가 필수적이지만 2년이 지난 현재 별도로 이용 실적을 파악하거나 홍보하지 않고 있다. 청장이 바뀌면서 동력을 상실했다는 게 경찰 내부 반응으로, 연락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진행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광주·전남 경찰의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시각 변화도 비슷하다. 경찰은 2년 전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이성한 경찰청장이 직접 챙기던 정책이지만 청장이 바뀌면서 당시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당 구역 내 범죄 발생 현황은 커녕, 다른 지역에 비해 강화된 순찰 서비스 등도 사라졌다. 성폭력범죄나 강도 발생 등이 우려되는 동네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한 뒤 주요 범죄 현황을 주기적으

**흐지부지 치안정책 보니**

- ▼안심 카 귀가 서비스  
2013년 야심차게 추진→실적 집계·홍보 중단, 빈껍데기로
-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  
성범죄 지도 만들어 중점관리→범죄 통계조차 내지않고 방치
- ▼불법 주정차 단속  
2013년 9604건→2014년 1877건으로 급감

로 파악하고 순찰과 환경 개선 등을 실시해 안심구역으로 바꾸겠다는 애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범죄 증가 추이 등 치안 변화상을 파악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해당 구역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수장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일관성 없는 교통 정책도 마찬가지다. 광주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의 경우 지난 2013년 한 해동안 적발건수가 무려 9604건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1877건으로 급감했다. 음주단속도 청장에 따라 차이가 컸다.

정순도 광주청장이 지난 2013년 7월 이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343건이 적발돼 전년도 같은기간(194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지난해 230건으로 줄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치안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관된 치안 서비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공무원 협박해 사업권 수주 인터넷신문 대표 실행 선고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남일 판사는 25일 공무원들을 협박해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 실질적 대표 A(58)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을 협박, 자신이 운영하는 소풍물을 통해 감지를 파는 계약을 체결하려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갈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농업회사 법인, 인터넷 소풍물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1년 한국 명품김치 산업화 사업단에서 1000만원 규모의 소풍물 구축을 하는 것을 알고 공무원들을 협박해 사업권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단은 결국 A씨의 협박 등에 사업권과 함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줬지만, A씨는 소풍물에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보완 요청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잔금 500만원을 달라며 공무원들을 다시 협박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명절 특수 준비 분주한 담양한과

설 명절을 한달여 앞둔 25일, 담양 창평의 한 전통한과 공장 직원들이 명절 주문 물량을 맞추기 위해 포장작업을 하느라 분주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아파트 변전실 화재...370여 가구 단전 불편

### 5시간만에 복구 전기 공급

24일 오후 6시2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모아아파트 지하 변전실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출동한 소방관에게

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변전기와 케이블 등 변전실 일부가 불에 타면서 아파트 4개 동 374가구에 최대 5시간 이상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화재 진압 직후 소방관과 한전 직원 등이 긴급 복구에 들어갔으나 변전실에 설치된 비상 자가발전 시설도 화재로 고장이 나면서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이날 밤 11시30분께 복구를 완료하고 전기 공급에 들어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목포 근무 이탈 병사 숨진 채 발견 “軍 허술한 초기 대응” 비난

총기와 공포탄을 소지한 채 근무지를 이탈했던 이모(21) 일병이 실종 8일 만에 바닷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 당시 사고 가능성보다 무장탈영에 무게를 두고 수색을 벌였던 군 당국의 허술한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육군 제31보병사단은 25일 목포시 북항동 서해어업관리단 인근 초소에서 200m 떨어진 바다에서 이 일병의 시신을 인양해 부검한 결과, 사인을 익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일병은 지난 15일 오전 6시에 "몸이 안 좋다. 배가 아프다"며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컨테이너로 이동한 뒤 행적을 감추고 군은 2시간 가량이 일병을 찾다가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군은 당시 이 일병의 사고 가능성보다 무장탈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천명의 인력을 동원, 인근 야산과 공·폐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화장실을 가다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은 낮다"던 군 당국은 시신 발견 뒤에야 "이 일병이 500m 떨어진 화장실 대신 가까운 해안가에서 용변을 보려다 실족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장을 바꿨다.

결국 군은 사고 이후 주변 상황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미흡해 무장 탈영에만 무게를 두고 최고 경계단계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는 등 소동을 피웠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전남 국보급 목조문화재 화재 취약

### 5곳 중 4곳이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 넘겨

전남지역 국보·보물급 목조문화재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5분 내로 현장에 도착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희선 의원(새누리당)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문화재 안전관리지도 표준모델 개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지역 국보급 문화재 5곳 가운데 4곳이 화재 골든타임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 송광사 국사전(국보 제56호)과 구례 화엄사 각황전(국보 제67호)의 화재 발생시 소방차 도착시간이 각각 1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회루와 함께 국내 최대 크기의 목조 건축물로 꼽히는 여수 진남관(국보 제304호)도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려면 15분이 걸린다.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국보 제13호)은 10분이 소요되고, 영암 도갑사 해탈문(국보 제50호)만 3분이 걸려 '골든타임'을 지켰다. 목조문화재는 화재에 취약해 불길에 휩싸이면 전소할 수밖에 없어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적으로 목조문화재 333곳 중 35.7%인 119곳만이 '골든타임'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선 의원은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 5분 이내 진화가 가장 중요함에도 목조문화재는 소방차 진입 지연 등의 이유로 초동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문화재는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한순간에 허망하게 사라지는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가지고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여직원 휴게실 상습절도 공장 관리부장, 결국 물가에 '털미'



여직원 휴게실에 들어가 사물함에 보관된 지갑에서 돈을 훔쳐온 공장 관리부장이 직원들이 설치한 몰래카메라 때문에 털렸다.

○2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김모(51)씨는 지난해 10월 초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 내 한 공장에서 여직원 휴게실에 들어가 김모(여·37)씨의 사물함

을 열고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4일까지 8차례에 걸쳐 총 1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

○때론 돈이 사라지는 것을 의심한 여직원들은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범행장면이 찍혀 털미를 잡힌 김씨는 경찰에서 "사물함 문이 열렸기에 맡아주려고 했는데, 눈앞에 지갑을 보자 순간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월산동 지하 1층 지상 4층 상가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델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지하 - 51평, 상가  
1층 - 41평 상가  
2층 - 46평, 사무실  
3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4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 시세 및 감정이 7억 5천만원
- 매매가 6억 5천만원 (웅 3억8천만원 포함, 보 1억에 월 350만 가능)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울 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

### 장성 다음빌라 32평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749-13번지  
4층중 3층, 정남향  
광주에서 30분 거리  
현재 전세 4500만원 임대중  
급매 5500만원(즉시 입주)

## 빌라 매매

주인 직매 H. 010-3605-5000

### 광천파크 빌라 34평

광주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5층중 3층, 신축, 정남향  
시세 및 감정이 - 1억 9천만원  
신우APT 부근, 즉시 입주가  
급매 1억 5500만원

##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328평, 33필지 중 1  
택지조성 중(화순 군청)  
2015년 5월 완공 예정  
매매 1억 3120만원  
주인 직매 H. 010-3605-5000